

뉴멕시코주
한인을 위한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10월호
2011

편집 사고

항상 광야의 소리에 좋은 글을 보내주고 계신 이정길 명예교수님께서 메일을 보내오셔서 뒤늦게 교수님의 글 가운데 끝부분이 잘려나간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교수님과 광야의 소리 독자 여러분께 편집자로서 사과를 드리며 지난 호 잘려나간 부분을 첨가해서 전문을 본 호에 다시 게재합니다.

조나단 리의 첼로 연주



지난 10월 2일 Popejoy Hall에서 첼로를 연주한 조나단 리(Jonathan Lee)의 사진
(관련 기사는 3페이지로)

New Mexico in Korean Wikipedia

(http://ko.wikipedia.org/wiki/뉴멕시코_주)



세계적인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백과에 뉴멕시코 주 소개가 나왔습니다. 특히 광야의 소리에 원고를 기고하시는 이정화 장로님께서 만드셨기에 이번 호에 그 내용을 소개합니다. (13페이지에서 계속)

The Voice in the Wilderness is a Korean journal published for Korean residents living in New Mexico. Our goal is to help the Korean community of New Mexico. Especially the Ethnic Minority Local Church Task Force in the New Mexico Annual Conferenc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supports for publishing this journal. We distribute this journal at the major cities in New Mexico to find out Korean residents and make a network for helping each other. If you have question, contact Mrs. Choy by phone (505-553-1009) or email (kuchachoy@q.com).

뉴멕시코 주 한인회 소식



(김치축제 단체사진)

2011년 9월24일 제 4회 김치 축제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번 해에도 많은 교민들의 후원으로 풍성한 음식과 다양한 문화를 소개할 수 있게 된 것을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참석해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부족했던 부분들이 많이 보충이 되고 행사가 잘 자리잡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의 후원과 참여로 이번 행사에서 총 \$4,636의 수익금이 얻어졌습니다. 한인회 운영에 잘 사용하여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사 5주전부터 음식 및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봉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하신 분들:지역 목회자 협의회,한인 천주교회, UNM 한국학생회, 아리랑 마켓, 김스마켓, A1 마켓, 여미 하우스, 홍타오 월남식당,사쿠라식당, 조규자,김영신,임낸시, 최진, 민명희, 김길자, 양태열, 박달규.



김치축제에서 전통혼례예식을 선보인 한국학교 교사 부부

한글학교 알림

‘한글로 된 도서 수집합니다.’

한국학교에서는 한글수업을 끝내고 한글로 된 책을 한 권씩 빌려주어 집에서 엄마와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혹 가정에 안 보시는 책이 있으시면 한국학교로 기증해 주십시오. 매주 한국학교 수업이 끝난 후 아이들이 더 다양한 책들을 빌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9:00- 오후 12:30 까지 수업을 하고 있으니 이 시간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한국학교 이선아 교장



블랙맨 태권도장의 어린이 시범팀과



한국학교 김치축제 현장학습에서 한국문화와 악기 연주를 보여 주는 이선아 교장과 학생들



다양한 김치들을 시식하고 있는 교민들과 시민들

* 자세한 사진들을 보시기 원하시면 한인회 웹사이트 <http://www.kaanm.com>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뉴멕시코주 한인회장 및 임원일동)



한국학교 교사 및 학생들의 ‘강강수월래’ 시범

광야의 소리는

매달 5일에 원고를 마감합니다.

원고나 뉴멕시코주 소식에 관한 기사를 보내시거나
광고를 요청하실 분은 마감 전까지
권구자 부장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도네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흑백: 1/8 페이지-\$20, 1/4 페이지-\$40

칼라: 1/8 페이지-\$35, 1/4 페이지-\$70, 1/2 페이지-\$200

담당Contact: 권구자 Kucha Choy 505-553-1009,
voiceofnm@gmail.com

편집위원: 이철수, 김채원, Joshua shin

§ Voice in the Wilderness §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조나단 리의 첼로 연주

지난 10월2일 뉴멕시코 대학에 있는 팝조이홀(Popejoy Hall)에서 알버커키 유스심포니(AYS=Albuquerque Youth Symphony)의 2011년 첫 연주회가 있었다. 이 연주회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이재원씨의 큰 아들 조나단 리(Jonathan Lee)였다. 라쿠에바(La Cueva) 고등학교 학생인 조나단 리는 이 연주회의 솔로연주자로 선발되어 유스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차이코프스키의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을 훌륭하게 연주해냈다. 이 곡은 협주곡과 유사한 형식으로 작곡된 첼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곡으로 원래 연주하기 어려운 곡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많은 첼리스트가 두려워하는 곡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조나단 학생은 풍부한 음악적 표현과 손색 없는 기교로 그 곡을 잘 처리해 내어 천여 명의 관객을 감동시켰다.



알버커키 저널(Albuquerque Journal) 9월 25일자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조나단이 이날 연주회에서 사용한 악기는 어느 시민이 조나단의 연주를 위해 빌려준 악기로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첼로 악기였다고 한다. '현대 첼로 연주의 아버지'로 불리는 파블로 카살스(Pablo Casals)가 유럽의 여러 연주회에서 사용했던 Januarius Gagliano 첼로 인 것이다.

조나단의 개인지도를 해온 UNM 음악대학 첼로 교수인 데이빗 쉘스(David Schepps) 교수는 "조나단은 그의 제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 중의 하나이며 그의 풍부한 음악적 표현력과 그가 가진 예리한 귀가 그의 강점이 된다"고 말했다.

가브리엘 골든의 지휘로 연주된 이 날 AYS 연주회에서 조나단은 그의 솔로 연주 후에 원래의 단원의 자리로 돌아가 함께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 전 악장을 연주했다.

조나단의 아버지는 이재원씨(샌디아연구소 엔지니어)이고 어머니 줄래니리는 바이올린 연주가이며 할아버지 할머니는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의 이경화 장로와 이옥주 권사이다.

김영신 이사장, 한상민 부이사장 선출

9월10일 임시 이사회에서 신임 이사장에 김영신씨, 부이사장으로 한상민씨가 선출되었습니다. 한인사회를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은 수고로 섬겨주실 것입니다.

뉴 멕시코 한인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 멕시코 주 한인회 이사장으로 선출된 김영신입니다. 적은 한인들로 구성된 조직이지만 '나는 한인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마음 자세로 한인회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참여하고자 합니다. 한인 여러분의 격려 또한 부탁드립니다. 모든 한인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편안하고 또 한 뜻깊은 한인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의 사항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김영신 이사장

Email: yongfre@yahoo.com

Ph#: (505)321-7695

Dear Community:

It is truly an honor to be able to serve the Korean community in the State of New Mexico. I recognize many prominent leaders in our community and their leadership, and I find it humbling to assume the vice chair's responsibility. I envision that this would be a journey of learning and serving many in our community, who tirelessly work towards our common good. I wish to draw upon our community's strengths to broadcast our service, to help promote both young and experienced members for their educational and professional growth, and to elevate our visibility amongst many ethnic communities within New Mexico. If you wish to joint this effort, please feel free to contact me at sangmhan@live.com.

Sang M. Han(한상민)

Vice-Chair Elect.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lbuquerque, NM 87109 phone (505) 797-8000 fax (505) 797-4090	Lunch 11:00-2:00 Mon-Sat Dinner 4:30-9:00 Mon-Thur 4:30-9:30 Fri-Sat Closed on Sundays

주부 무용단 모집

한국무용수업

대상: 주부 및 모든 여성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30분~11시까지 한인회에서 모입니다.

1달 \$ 45

장소 : 한인회

강사: 이선아 (한인회 예술부장) 리틀 엔젤스, '르' 무용단, 서울 시립 무용단 활동, 경희 대학교 무용과 졸업, 김백봉 무용단 활동, 뉴멕시코 대학 무용 대학원 졸업

문의사항: 이선아 505-828-0306, 505-515-4211, 김두남 505-270-1984

e-mail: ninosophia@hotmail.com



Yummi House

雅緻苑

Chinese Cuisine (중화요리 전문 식당)

Mon-Sun. 11:00am-9:00pm

**1404 Eubank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Phone (505) 271-8700

추천 메뉴

삼선짜장면 \$7.95

삼선짬뽕 \$7.95

해물탕면 \$7.95

다섯가지 냉채 \$29.95

간풍기, 닭고기 튀김과 마늘소스 \$7.95

탕수우육 \$10.95

양장피 잡채 \$15.95

-에세이-

수확의 계절에

이정길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부자가 되려거든 농부가 되어라.’ 오랜만에 듣는 반가운 말이었다. 투자의 귀재에 베스트 셀러 작가 그리고 미국 재계의 제1인자 중 한 사람인 짐 로저스가 한 말이 2011년 7월 11일자 타임에 실렸다. 최근 많이 올라버린 식품가격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인지 의문을 품는 사람이 많지만, 로저스는 앞으로 몇 십 년 동안 농업부문의 수입이 급격하게, 월가까지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른 산업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본다. 그가 주장하는 핵심은 지금은 은행가가 아니라 농부가 더 많이 필요한 때라는 것이다. 전 세계가 심각한 식량문제를 안고 있으며, 그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더 많은 사람을 농업으로 이끄는 수밖에 없다고 역설한다.

한적한 시골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나는 농사꾼들의 어려움을 수없이 보며 자랐다. 1950, 60년대의 농촌은 가난의 대명사였으며, 농촌생활은 고달픈의 다른 표현이었다. 뼈빠지게 일해도 생활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는 그래도 형편이 나아져 상머슴에 커다란 황소를 두고, 집 뒤 천의 우리에 암탉지를 기르고 있었다. 태산보다 높다는 보릿고개를 넘기고, 여름의 무더위를 난 다음, 눈코 뜰새 없이 바쁜 가을걷이가 끝나면 잘 갈무리해둔 곡식으로 긴 겨울을 나고는 했다.

울 들어 유난히 심했던 가뭄에도 불구하고 이곳의 가을은 풍요를 가져다 주는 연례행사를 잊지 않고 마련 해주었다.

ICHIBAN

Japanese Restaurant

一番 Japanese Food & Korean Food

Phone (505) 899-0095
www.ichiban-alb.com
10701 Coors Blvd. NW Albuquerque NM 87114

그지없이 상쾌한 날씨에 수많은 지역축제 그리고 현실적인 풍요 때문에 뉴멕시코 주에서는 9월을 상달이라 부른다. 앨버커키에도 불박이 농산물시장에 더해 곳곳에 임시농산물장터가 열리고, 느긋한 마음으로 돌아다녀보면 시인들이 '세 자매'라고 부르는 옥수수과 파란콩 그리고 애호박이 토마토, 고추와 함께 넘쳐난다. 9월은 농부들에게는 바쁘면서도 보상을 받는 시기다. 추수의 계절에는 모든 희망과 믿음을 되돌려 받기 때문이다. 씨를 심으며 아주 잘 자라주기를 바란 다음 그에 대한 보상을 거두어들이는 때인 것이다. 아울러 잘못된 일과 잘한 일을 돌이켜보고, 다음 해에 할 일들을 생각하는 때다.

어렵기만 하던 한국의 농촌생활이 녹색혁명을 계기로 점차 나아지고 있었다. 벼의 수확량이 급격하게 늘어 자급자족하기에 이르렀고, 주요 가축의 집단사육방법이 도입되어 육류도 훨씬 더 많이 공급되었다. 그러나 서방 선진국에서 이미 사양산업이 되어버린 농업은 우리나라에서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가끔씩 나타나 더 고전을 치를 수밖에 없었다. 거기다 기술이 놀랄만한 속도로 발달하고 있어서, 자원이 많지 않고 땅도 좁은 처지에 중농정책을 유지하다가가는 나라가 거덜나고 말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 농업분야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점차 바뀌어가고 있었지만, 해마다 모든 이에게 풍요로움을 맛보게 해주던 추석은 구정과 함께 큰 명절로 곳곳하게 살아남았다. 거의 모두가 조상전래로 농촌에 뿌리를 둔 사람들이라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마음으로 대자연에 감사하고 조상의 은공을 가슴에 새긴다.

미국의 심장 지대가 돈을 퍼 올리는 펌프의 역할을 한 것은 수십 년 전의 일이었고, 고용의 주요한 원천이었던 것은 그보다 더 오래 전의 일이었다. 가족들이, 아니 미국 전체가 계속해서 떠나는 바람에 오래된 농촌 마을들이 텅 비어버렸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 기술, 서비스분야의 직업, 금융 등이 경제의 기간을 이루면서 정부의 보조, 규제 완화, 자선음악회의 지원이나 받아 연명하는 소위 '보호동물 중'이 되어버렸던 농업은, 지난 수년 동안 중국과 인도 같은 부해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배가 고픈 시장과 생물연료의 붐에 힘입어 다시 한 번 고도성장산업이 되었다. 미국의 경제가 성장률 1.9퍼센트로 휘청거리고 있을 때인 2010년에 농가의 순수익은 27퍼센트에 달했고, 2011년에는 거기에 다시 20퍼센트가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곡창지대인 중부 네브래스카 주나 아이오와 주의 실업률은 전국평균의 반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농촌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를 바란다면 지나친 욕심일까. 농자천하지대본은 어릴 적부터 내 머릿속에 박혀있다. 농심을 가지고 행하면 세상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以農心行 無不成事) 고

배우기도 했다. 농사꾼은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뿌리는 대로 거두는 것이 농사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면 정직을 배운다. 씨를 뿌리고 난 후 싹트고 자라서 열매가 열려 거둘 때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다리는 지혜도 터득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거두어들인 후에는 반드시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해보아야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 농심에는 근면, 정직, 기다리는 지혜 그리고 회고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무엇이든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면 천하에 못 이룰 일이 있을 수 없다.

내가 어릴 적에 느끼던 순박한 농촌인심이 농심이다. 넉넉한 살림살이가 아니면서도 끼니때 맞춰 찾아 든 절인을 그냥 돌려보내는 일은 좀처럼 없었다. 때늦게 손님이 오면 이내 아궁이에 불이 지펴지고, 정의껏 차린 상이 들려나간다. 혼인과 초상은 온 동네의 일이었다. 힘 드는 일을 서로 거들어 해내는 품앗이에 몸을 아끼지 않았다. 이바지가 들어오거나 조금이라도 색다른 음식을 만들었을 때는 반드시 가까운 이웃과 나눠 먹었다. 그 옛 마을에는 초등학교 동창 중평, 수남, 채식, 재정이 지금도 살고 있어, 그들은 필시 태 자리에 뼈를 묻게 되리라. 그때 그 훈훈한 인심이 자꾸만 그리워지는 건 나이 탓인가.

-지난 호 에세이-

경 험

이정길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독특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모든 상태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이나 사물과 관련된 모든 상황에서 각자는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된다. 경험은 몸소 겪고 치러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 단어는 때때로 경험에 의해 얻은 지식, 경험에서 우러난 지혜, 장기간에 걸친 견문 등을 뜻하는 말로도 쓰여서 경험이 풍부하다고도 하고, 경험을 살린다고도 한다. 사물현상 즉 감각이나 지각작용에 의해서만 깨닫게 되는 객관적 대상을 놓고 볼 때 그것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 지식, 진리는 지각적 경험을 떠나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추상적이며 관념적인 진리도 물질에서 진화되어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오랜 세월 동안 반복된 독특한 경험이 인류의 유전자 속에 축적된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삶은 경험의 연속이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지면 그만큼 경험이 풍부해진다. 경험은 기억을 발생시키며, 수많은 기억들 중에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 나에게는 참철을 당한 경험이 있다.

가슴 속에 묻어두는 것 말고는 달리 어찌해볼 수가 없었던 그 경험은 살아있는 동안 나와 함께하다가 무덤까지 갈 것이다. 이런저런 일을 수없이 겪다 보면 흔히 주변상황에서 분리되거나 초연해지게 되는데, 초연해지는 것이 무관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살면서 다양한 경험을 해왔고, 그래서 상황의 흐름에 몸을 내맡기는 법을 배워 알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지체로워졌음을 의미한다. 나이 든 사람은 또 과거의 경험 때문에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젊은 사람에 비하여 나을 수 있다.

전신전문가가 되려면 최소한 10년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1899년 심리학회지에 실리면서부터 '10년의 법칙'은 인간이 복잡한 일에 숙달되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이라고 널리 인정되어 왔다. 서양 장기시합의 결승전에서 이기려면 적어도 10년은 열심히 연습해야 한다는 권위자들의 영향력 있는 논문이 아메리칸 사이언티스트에 실린 1973년부터는 전문가의 수행능력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경험이 항상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고, 그 후 30여 년에 걸친 전문가의 수행능력에 관한 연구결과는 경험 그 자체, 예를 들어 뇌수술이나 스키처럼 특정한 기능에 숙달되기 위하여 소비한 시간의 양은 실제로 탁월한 수행능력을 재현하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었다.

그러한 연구결과는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지만, 그것이 곧 성공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경험과 탁월한 기능을 겸비한 전문수행능력자는 그래서 전문가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는 자기분야에서는 훌륭한 재능을 발휘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면 일반사람들보다 나을 게 없는 사람들이다. 경험은 전문수행능력에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수행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일상적인 일을 거의 무의식적으로 수행한다. 그 예를 우리는 운전에서 볼 수 있는데,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서는 어디를 어떻게 지나왔는지 기억하기 어려울 때도 가끔 있다. 그리고 경험은 또 사람을 과신으로 이끌어서, 경주용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유자들이 일반운전자들보다 더 많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상만사를 배우는 방법은 직접경험이 으뜸이라 했고, 배우는 데는 실패가 성공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게 정설이라고 하지만 나이가 많다고 모두가 지체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55세 이상 운전자들이 교차로에서 저지르는 교통위반의 35퍼센트가 선행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25퍼센트가 좌회전을 잘못하는 것으로 집계된 사실은 지금까지 발표된 경험에 관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최상의 수행능력은 단순한 경험에서가 아니라 전력을 다하는 피 나는 노력으로만 얻을 수 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며, 쉽게 느껴지면 그것은 타성이지 향상은 아님을 바로 알아차

려야 한다. 이처럼 일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나 연구 결과들은 나이 드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가 사람에게서는 필요하다고 가르친다. 에드워드 머로우가 남긴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경험의 노예다." 라는 말은 70을 넘긴 나 같은 사람이 깊이 새겨야 할 교훈인 것만 같다.

의자에 조용하게 앉아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을 그저 그대로 의식하기만 하는 법을 배우면 세상이 거리낌없이 가면을 벗고 당신 앞에 스스로를 드러낸다. 느낌에서 어떤 변화를 찾으려 하지 않고, 생각은 마치 밖에서 지저귀는 새소리인양 들으며 앉아있으면, 시끄러운 소리나 흐린 흙탕물이 그대로 놔두면 마침내 고요해지고 맑아지듯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 자신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경험에서라야 참된 지혜가 터득된다. 노년은 세상 너머를 경험할 수 있는 시기 아니던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관찰자와 관찰이라는 과정 그리고 관찰의 대상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것은 최상의 경험이 된다. 보는 사람과 그가 보는 광경은 하나이며, 내가 다른 모든 사람과 동일한 질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종교에 예비된 이런 경험을 '일체성 의식'의 경험이라고 하는데, 과학에는 그것을 묘사하는 표현이 없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부르자는 주장도 있다. 우리 모두가 걸모습만 다른 동일한 존재라는 경험이야말로 지고한 사랑이라 일러 마땅하다.

HUONG THAO


Vietnamese Cuisine

Lunch & Dinner • Beer & Wine
Tues - Sat 11:00am - 9:30pm • Sun 11:00am - 8:30pm

1016 B. Juan Tabo NE
Albuq., NM 87112 • (505) 292-8222



Choices: pork, shrimp, chicken, beef, \$11.25 or any combo for \$11.95
Extra large add \$3.95 Extra noodles \$2.25 Extra Meat 2.95



18

베트남 스프링롤

ABQ가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됨



알버커키가 미국내의 50개의 살기 좋은 도시중에서 15번째의 살기 좋은 도시(Best Cities)로 뽑혔다고 2011년 9월23일자 알버커키 저널에 브로드스키 기자에 의해 보도 되었다.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Bloomberg Businessweek)에서 선정한 결과에 의하면 알버커키가 14번째의 뉴욕과 16번째의 보스턴 사이에 들어갔다. 이는 40번째 순위인 피닉스(Phoenix)나 27번째의 덴버(Denver)보다 높다.

“리오 그란데강이 흐르고 샌디아산이 동쪽에 있고 햇빛이 밝은 경치 좋은 뉴멕시코에서 제일 큰 도시이며 인구당 공원 면적이 넓으며 실업률이 낮고 좋은 공립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랭킹을 얻게 되었다”라고 비즈니스 위크는 설명하고 있다.

Businessweek.com에서 100개의 미국내의 대도시를 비교해서 순위를 정했는데 그 기준은 도시생활의 질에 두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인구에 비례해서 얼마나 많은 도서관, 박물관, 대학, 식당, 스포츠 팀이 있으며 또 시민의 소득, 극빈자, 실업률, 범죄율, 부동산

상 용자 월부를 감당 못해서 생기는 반환권 상실(Foreclosure)비율, 시민의 교육수준, 공립학교 평가, 1000명의 시민당 활당한 공원의 면적, 공기의 오염도등이 랭킹을 정하는 기준이 되었다고 한다.

100개의 도시중에 바닥에 들어간 도시는 디트로이트(Detroit); 스타크톤(Stockton, Calif.); 에크론(Akron, Ohio); 라레도(Laredo, Texas)와 클리블랜드(Cleveland)가 되었다고 한다. 상세한것은 인터넷의 businessweek.com을 들어가 보면 알수 있게 된다. 상위권에 든 도시를 순위대로 보면 아래와 같다. (1)탈리(Laleigh, N.C.) (2)아링톤(Arlington, Va.) (3)호놀룰루 (4)스칼스데일(Scottsdale A.Z.) (5)어바인(Irvine C.A.) (6) 워싱턴 DC (7) 샌디에고(San Diego) (8)버지니아비치 (9)산 프란시스코 (10)앵커리지 (11)프라노(Plano T.X.) (12)오스틴(Austin T.X.) (13)시에틀 (14)뉴욕 (15)알버커키 (16)보스턴 (17)매디슨(Madison, W.C.) (18)콜로라도스프링...(53)로스엔젤러스(L.A.)

세계적으로 유명한 Concert Hall

김준호 장로

우리들은 자기 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 나도 독자들처럼 내가 좋아하는 음악들이 있다. 그런데 이 음악을 라디오로 들을 때와 음향이 제대로 구비된 음악 감상실에서 들을 때 그 음악이 풍기는 향기는 좀 다른데 하늘과 땅의 차이라면 좀 과장한 것 아닐까 생각 된다. 그래서 음악 감상은 주관적이라고 하는데 꼭 그렇다고만 할 수 없다는 것이 경험 많은 자들의 중론이다. 3년 전에 동 유럽 관광을 갔던 적이 있다. 여러 곳에서 유명했던 많은 음악가들의 묘들이며 유적들을 보았다. 베토벤의 비석 앞에 어떤 젊은이가 앉아서 묵상(?)하는 모습도 보았다. 이

Japanese Kitchen Steak House

Indian School Rd

Americas Pkwy

Louisiana Blvd

Marriott Dr

I-40

Japanese Kitchen

제페니즈 키친

일본인이 경영하는 일식 정통집

일본정식(5코스:30불, 6코스:40불, 8코스:50불)

모듬정식(벤토), 해물우동, 튀김우동, 닭고기정식, 고등어정식, 콩치정식, 연어정식, 그외 일본 정통음식

(대만)야끼전문, 고기 종류와 해물 외 다수

Phone(505) 884-8937

6521 Americas Parkway, NE, ABQ

Japanese Kitchen Steak House

6521 Americas Parkway NE
Albuquerque NM, 87110

Phone: 884.8937
Fax: 884.8938

www.japanesekitchen.com

젊은이를 바라보며 나는 감탄했다. 위대한 명곡들을 남긴 사람을 기억하며 명상을 하는 것이다. 좀처럼 상상하기 어려운 풍경이었다. 또 어떤 아침에 성당에 들어가게 되었다. 마침 예배가 진행되며 음악이 연주되는 것을 들었다. 야! 이게 뭐냐! 그때까지 전연 느껴보지 못했던 웅장함과 압박해 오는 긴장감등 나는 그 아름다운 선율에 매혹되고 말았었다. 아주 도취되었던 것이다. 우리 부부만 갔었던 것이 아니고 일행이 있었으니 무한정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다. 조금 더 들어야 직성이 풀렸을 터인데 하고 지금도 가끔 생각 한다. 모르는기는 하지만 그런 경험은 나만의 것이 아닐 줄 안다.

우리 교회에서 아주 가깝게 신앙생활을 함께 하다가 여기 알버커키를 떠난 분들이 꽤 많다. 그들을 생각 하면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보고 싶은 생각이 난다. 속으로 그들도 우리들을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워할까? 아니지. 바쁘게 살고 있을 테니. 아닐 거야. 이럴 때 내가 부르는 노래가 있다. “분홍립스틱” 나는 이 노래를 “광복절 특사”라는 드라마에서 들었는데 좀 매력이 있다고 느꼈다. 나는 이 가사를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실패했었다. 하도 답답해서 영어로는 무어라고 할까 생각하다가 May be “Pink lipstick”이라고 하고 우리 아들에게 말했더니 “아빠, Pink lipstick?” “Are you looking for a song called pink lipstick?” 차마 아버지에게 “You are crazy”라고는 못하고 좀 한심스럽다는 눈치였다. 그래도 나는 여기 저기 뒤흔다가 결국 Yahoo Korea에 들어가서 강 애리자가 부르는 것을 찾았고 가사도 알게 되었다. 테이프를 녹음도 해서 멀리 운전할 때 가끔 틀고 같이 부르기도 한다. 우리가 가끔 덴버에 여행을 가면 최건영장로님 댁 심방 을(?) 가는데 의례히 이 노래를 부른다. 정혜영 집사님이 피아노를 아주 잘 치시니까 안정맞춤이다. 그 두 분이 덴버 한인 합창단 멤버로도 활약하므로 함께 부르면 아주 신난다. 한 곡 가지고는 성이 안차서 “나를 사랑하는 주님”하고 “별” 3곡을 부르곤 한다.

우리들이 관광 가면 무엇을 보러 가는지 상상할 수가 있다. 몇 백 년을 걸려서 건축한 고딕 건축물, 아름다운 자연풍경, 도시풍경 또는 정교하게 장식된 내부시설 미술작품들 ----- . 참으로 유럽은 오랜 역사를 거치며 만들어진 유적들이 많다. 관광을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다. 웅장한 건물, 실물과 꼭 같은 동상, 아름다운 궁전들, 살아서 숨쉬는 듯한 조각상들. 이태리 씨스타인 채플 천정에 그려진 기막힌 작품들. 어떤 때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완성할 수 있었을까? 감탄 하게 된다. 그런데 내가 이번에 소개 하려는 것은 우리들이 경험했던 관광 이야기가 아니고 세계적으로 소문난 Concert Hall 들을 소개하고 혹시나 독자들 가운데 그런 음악회관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다.

알버커키 한인 천주교 공동체

이사회 회장(505-271-8031)

§월요일:매월 세 번째주 금요일 오후 7:00 pm

§장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621 Vermont St NE, Albuquerque, NM

§주기도회: 매주 505-239-4401

§성서모임: 매주 505-515-4211

뉴멕시코 성경교회

서종철 목사님

주일예배 §시간: 오후 1:00 pm

새벽기도 §시간: 5:30 am (매일)

§장소: 2801 Lomas Blvd NE, Albuquerque, NM 87106

(505) 238-3551

로스 알라모스 교회 (Los Alamos, Santa Fe)

노강국 목사님

주일예배 1부 §시간: 11:30 am

§장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예배 2부 §시간: 2:00 pm

§장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a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매달 넷째 주일은 연합예배입니다.

§시간: 11:30 am

§장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라스 크루세스 침례교회 (Las Cruces)

박종인 목사님

주일예배 §시간: 11:00 am

§장소: 1441 East Mesa. Las Cruces, NM 88011

목요일 6:00 pm 기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

김익석 목사님

주일예배 §시간: 오후 2:00 pm

새벽기도회 §6:00 am (Tue-Fri)

성경공부 §매주 월요일 10:30 am (한인회관)

§장소: 12120 Copper Ave., NE, Albuquerque, NM 87123

(505) 903-2297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Albuquerque)

김기찬 목사님

주일예배 (Worship) §11:00 a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Youth Service in English)

§11:00 am (Sunday)

새벽기도회 §5:30 am (Mon-Fri) §6:00 am (Sat.)

화밍톤 한미 침례교회 (Farmington)

진경일 목사님

주일예배

§시간: 12:00 am (한국어 예배) 1:00 pm (Indian 영어예배)

§장소: San Juan Baptist Assoc.

1010 Ridgeway pl., Farmington NM 87401
505-453-5461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윤정렬 목사님

주일예배 §시간: 오전 9:00 am §시간: 오전 11:00 am

주일학교 §시간: 오전 11:00 am

§장소: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NM (505)
238-3551

클로비스 순복음 교회

§시간:

§장소: 405 N. Connelly St, Clovis (575)-762-4510

많은 현대 작곡가들, 음악평론가들, 지휘자들과 연주자들 그리고 일반 음악애호가들이 선호하는 세계 제일의 Concert Hall(음악회관)들은 다음과 같다고 Leo Beranek박사가 발표했는데 세계 전역에 많이 알려진 100여개의 음악 회관들을 직접 방문하고 또 직접 가서 듣기도 하고 그곳에서 지휘하고 연주했던 분들, 또 일반 청취자들과 대담을 해서 추리고 또 추린 것이다.

첫 번째가 Vienna에 있는 Grosser Musikvereinssall, built in 1870 (Vienna Hall),



1) Vienna Concert Hall built in 1870

두 번째가 Leipzig에 있는 Gewandhaus (Leipzig Hall, 1885),



2) Leipzig Hall, 1885

세 번째가 Amsterdam에 있는 Concertgebouw (Amsterdam Hall, 1895),



3) Amsterdam Hall, 1895

네 번째가 Boston에 있는 Boston Symphony Hall (Symphony Hall, 1900) 등이다.



4) Boston Symphony Hall, 1900

이 음악회관들이 건축된 때는 모두가 음향공학이 발달되기 훨씬 전이다. 현재는 음향공학도 많이 발달되어 방의 구조, 크기, 벽면의 재료와 처리 방법, 직사파와 반사파와의 상호관계, 잔향 제수 등의 영향이 아주 복잡하지만 그것들을 분석도 할 수있고 여러 parameter를 측정할 수 있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래에 건축된 음악회관들은 왜 옛날에 건축된 회관만큼 좋은 음향 효과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것인지 큰 의혹 중의 하나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Violin에도 있다. Violin을 연주하는 사람들은 대개 Stradivarius violin이 참으로 좋은 소리를 낸다고 알고 있다. 그래서 인지 현재 그 Violin 값이 수백만 불이라고 한다. 이 사실을 안 한 과학자는 그 violin과 요새 만들어진 것들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데 아주 재미있는 것을 찾아 낸 것이다. 이과학자는 이들 Violin들의 frequency spectrum을 분석했는데 Stradivarius violin은 주파수 대역중에 3000Hz에서 6000Hz 사이의 Harmonics들이 아주 균등하게 분포 되어 있는데 반해서 요새 만들어진 Violin들은 3000Hz 보다 훨씬 낮은 데서 시작하고 Harmonics가 균등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냈다. 또 다른 과학자는 이들 Violin들에 Xray를 투과시켜 보았는데 비싼 Violin의 나무 밀도가 크고 uniform하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 비싼 Violin을 만든 사람이 Antonio Stradivari(1644-1737년)인데 그가 살았던 1645년부터 1750년까지 유럽에 Little Ice Age가 와서 몹시 추웠다고 한다. 이것이 violin sound board 나무의 밀도를 크게 만드는 요인이 됐다는 것이다. 그러니 현재 우리들이 제 아무리 나무를 다시 개발해도 Antonio가 썼던 나무는 다시 찾지를 못한다는 것이다. 내가 듣기로는 유명한 Violinist Itzhak Perlman이 이 바이올린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Antonio Stradivari는 보통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음들을 식별 할 수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나무를 택해서 사용했을 터이니 그는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비한 재능을 가졌던 사람이다. 다시 음악회관 이야기로 돌아가서 상기한 Hall 들의 중요한 측정치들을 추려서 도표로 만들었다.

World Best Concert Hall's Technical Details

Name of Hall (year)	Size (HxWxD, ft)	Volume (ft ³)	Seat Area (ft ²)	Number of Seats	RT (500-1000 Hz) (Reverberation Time, Seconds)	ITDG (Initial Time Delay Gap, milliseconds)	S/N (ft ²)
Vienna (1870)	57x65x132 (1:1.14:2.32)	530,000	10,600	1,680	2.05	12	6.3
Leipzig (1885)	51x72x108 (1:1.41:2.11)	375,000	9,750	1,560	1.55	8	6.3
Amsterdam (1895)	56x91x84 (1:1.63:1.5)	663,000	12,200	2,206	2.0	21	5.5
Boston Symphony (1900)	44x129x144 (1:2.93:3.27)	662,000	15,000	2,631	1.8	15	5.7
KUMC Sanctuary (2003)	20x32x48 (1:1.6:2.4)	30,000	1,080	120	0.94	Not measured	9
KUMC Sanctuary (acoustic improvement)	20x32x48 (1:1.6:2.4)	30,000	1,080	120	1.3 * (estimated)	Not measured	9
Solomon's Temple (B.C. 959)	45x30x60 (1:0.66:1.33)	81,000	1,800	No seat	3-4 (guess)	Not measured	

*If we add same ceiling panel material 24 feet more at the podium area, we may achieve 1.3 second RT which creates a most desirable sound field and an optimum reverberation period. Can you believe that world best concert hall in Albuquerque?

이 도표에 수록한 수치들은 각 음악회관들이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것만 추려

놓은 것이다. 잔향계수 (Reverberation Time 또는 Reverberation Period)는 Vienna Hall 이 2.05초, Leipzig Hall 이 1.55 초, Amsterdam Hall이 2 초, Boston Hall이 1.8 초로 측정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RT는 모두 가 2초 이내인 것이다. ITDG (Initial Time Delay Gap)은 Vienna Hall이 12 milliseconds, 그 다음이 8, 21, 15, 23 milliseconds로 집계되었다. 한편 각 회관의 건물 크기(size)는 실재 측정치와 비례치를 계산해서 서로 비교하기 쉽게 하였다. 비례치를 보면 건물내부의 높이를 기준으로 했음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비례치들을 검토해 보면 유명한 Concert Hall들의 숫자들이 모두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RT 또한 그러하다. 참고로 우리 KUMC Sanctuary의 크기도 첨부 하였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대해 좀 더 말씀 드린다면 비례치가 1대 1.6 대 2.4가 된다. 이 비례치는 많은 회관 건축가들이나 음향 전문가들이 추천 하는 것이다. Hallelujah !!! 나는 우리 교회가 전문가들이 추천 하는 최적의 크기라는 것을 미처 몰랐다.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 예배실 size는 120명을 수용 할 수 있게 하라고 요구했던 것 뿐이다. 그런데 이게 웬 떡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너무 비약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을 것이다. 허나 나는 우리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확신한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많은 성도님들과 타지에 계신 분들이 우리 건축 공사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사실은 교회 건축을 책임 맡았던 이경화 장로님이 더 잘 안다. 그 밖에 나 외에도 몇몇 분들도 알고 있지요. 물론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은 그때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는데 구하는 자와 찾는 자와 두들기는 자들에게 주심을 순간순간 마다 깨닫게 해 주신다. 구약에 느헤미야처럼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며 일하고, 일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니 Facio Ergo Sum(나는 행동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를 실천하는 성도님들이 더 많이 배출되기를 바란다.

이런 일로 해서 나는 더 우리 예배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현재 우리교회 강대상 위 천정에 뒤틀벽부터 ceiling panel이 12feet는 제일 반사가 잘 되는 나무와 동일한 특성을 가진 재료를 사용 하였다. 그 이유는 보통 쉘링 패널의 음의 흡수량이 꽤 높으므로 반사율이 높은 것이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치된 우리 예배실의 RT는 도표에 있는 것처럼 .94 초이다. 이 숫자는 우리 교회 예배실의 부피가 30,000 cubic feet임을 생각 할 때 최적한 RT는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건축을 2003년에 완료하고 입당예배를 드렸는데 또 하나 특별할 만한 일이 생긴 것이다. 성악을 전공 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로마 합창단이 우리 교회에 와서 그때 특별 공연을 하였다. 그들은 여러 차례 미국 순회공연을 했다고 했다. 많은 대원들의 평이 우리교회의 음

향이 정말 fantastic하다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느꼈다는 것이다 !!! 여성들의 청아한 목소리며 남성들의 기막힌 목소리는 우리교회 음향과 잘 조화를 이루었던 것이다. 나는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실은 내가 신경 쓰고 있는 것을 실증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만족스러웠다. 아래 사진은 로마 합창단의 공연 모습이고 합창을 듣고 있는 청중들이다.



2003 년 3 월에 우리 교회에서 공연하는 로마 합창단원들



로마 합창단원들의 합창을 감상하는 관객들

그래서 나는 우리교회 새신자 환영회 때면 새로운 신자들에게 꼭 이 사실을 말한다. 그러면 “김장로, 다들 아는 소리 또 하네”한다. 나는 또 욕심(?)이 생긴다. 만약 우리들이 예배실의 특수한 ceiling panel을 24feet를 더 바꾼다면 도표에 추측한 RT가 1.3초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알버커키에 Best Sounding Hall이 탄생할 수도 있다. 그러면 구태여 Vienna나 Boston까지 안 가도 알버커키에서 음악회를 가지고 이전에 들어 보지 못했던 음향

효과를 경험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숨은 독지가의 배려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또한 Solomon 의 성전 크기를 기재했는데 우리교회와 거의 맞먹는 크기다. 그러나 RT는 3~4 초라고 추정했다. 왜냐 하면 천정이 대략 우리 것의 2 배 가 되고 내부 장식이 금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지난주에 알버커키 연합 부흥회를 가졌는데 첫날 밤 집회를 성결교회에서 하였다. 나는 그 교회 본당의 RT가 좀 길다고 느꼈다. 이성일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어떤 때는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그 이유를 다음처럼 설명 할 수가 있다. 우선 Figure 1 을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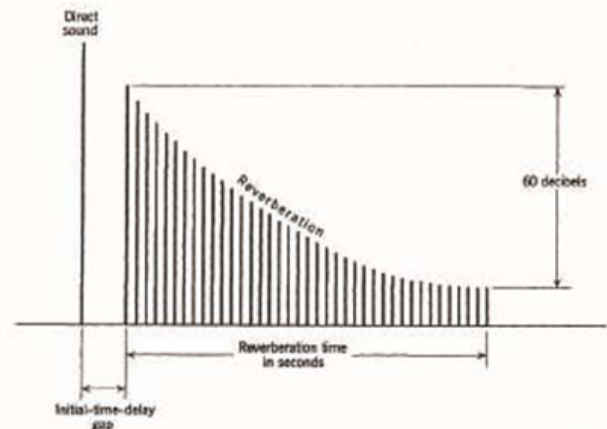


Fig. 1 Reverberation Time and initial time delay gap (ITDG)

Fig. 1

RT와 ITDG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ITDG는 연주하는 악기에서 나오는 직사파(Direct wave)와 그 다음으로 들려오는 처음 반사파 (First reflected wave)와의 지연 시간을 측정한 것이다. Vienna Hall의 경우 12 milliseconds이고 Leipzig는 8 milliseconds, 또 Amsterdam은 21milliseconds, Boston이 15milliseconds이다.






A-1

한국식품점

(505)-275-9021

1410 Wyoming NE



Everything You Need for Oriental Food

Mon~Sat 10:00~6:00

Sunday close

여기서 RT가 무슨 뜻인지 다시 설명할 필요가 있을 듯 하다. 전에도 설명한 적이 있었지만 다시 언급한다면 ITDG 후에 반사되는 처음 음의 강도부터 계속 반사되며 감쇄하는 강도가 60dB(decibel) 까지 떨어질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60dB란 음의 강도가 100만분의 1로 감소되는 point를 뜻한다.

Fig. 2에는 RT가 길 경우 (A) (예로 3초)와 짧을 경우 (B) (예로 1초)에 처음 tone하고 둘째 tone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지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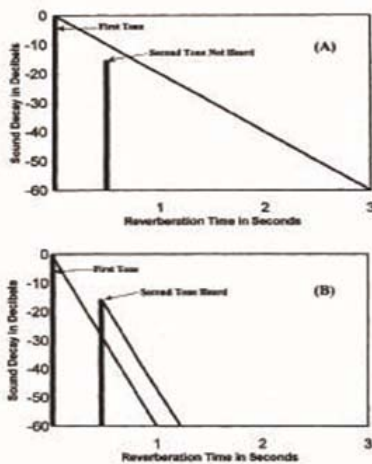


Fig. 2 Influence of a long RT (A) and a short RT (B) to musical notes

Fig. 2

A를 보면 둘째 음의 강도가 첫째 음의 강도보다 15dB(31분의 1) 적다고 할 때 RT가 길면 첫째 음이 감쇄가 안 되어 둘째 음보다 강하게 들려서 둘째 음 소리가 잘 안 들리게 된다. 반대로 B는 RT가 짧아서 둘째 음이 또렷하게 들린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 현상을 전문 용어로는 Intelligibility(명료도)라고 한다. 명료도가 좋아지면 음악은 깨끗하게 살아나고 선명하고 음색과 음향이 풍부한 음악들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RT가 너무 길면 웅 웅 소리가 나며 말소리며 음악 소리가 뒤 섞여서 잘 분별 할 수가 없게 된다. 다른 방법으로 설명 하면 예로서 C4(middle C, 261.63 Hz)를 fortissimo(ff)로 팡치고 A4(middle A, 440.00 Hz)를 pianissimo(pp)로 쳤을 때 방의 잔향계수가 너무 길면 A4 음이 잘 안 들린다는 것이다. 즉 명료도가 푹 떨어진다는

말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덧붙이면 Orchestra가 연주하는 음악회에 가면 의례히 Concert master가 자기 Violin를 가지고 나오고 그때 청중들은 박수치고 그다음에 Oboe부는 사람이 A4 note(440 Hz)를 불면 모든 현악기 가진 분들이 이 note에 자기 악기의 A4 note를 다시 tuning 한다. 이 A4를 standard로 쓰는 이유는 그 음이 온음 즉 440.00Hz이기 때문이다. 만약 A4가 440.3Hz나 399.5Hz라면 굉장히 Tuning 하는데 힘들 것이다.

세계에는 무수한 음악회관(Concert Hall)들과 Opera House들이 있다. Beranek 씨가 유명하다고 집계한 것을 보면 미국에 26개, 일본에 12개, 독일에 11개, 영국에 8개, 오스트리아에 4개, 볼란서에 3개, 스위스에 3개 등이다. 우리 한국에도 10여개가 있다고 들었지만 RT나 ITDG 측정치가 없어서 무어라 평할 수가 없다.

음의 속도가 대략 one foot/one millisecond 이므로 Vienna Hall의 경우 ITDG가 12 millisecond라는 것은 12 feet에서 음이 오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그 큰 Hall에서 연주하는데 바로 옆에서 연주 한다는 착각을 하게 만든다. 그래서 상기한 음악회관들이 아주 인기가 좋은 것이다. 한번 이 음악회관에서 음악을 들어 본 사람들은 좀처럼 다른 회관을 찾지 않고 자기가 경험했던 회관만 가기 때문에 충성 member가 형성되기도 한다. 한 가지 Irony한 사실은 세계 제일의 음악회관들이 전부 1900년 아니면 그 전에 건축되었는데 그때는 건축 기술이 현재와 같이 발달되지 못 했는데도 그런 명물 회관들이 만들어 졌으니 현대 건축 기술에 무슨 맹점이 있는지 궁금해진다.

어떤 전문가는 옛날에는 지금처럼 긴 Beam을 제작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건축했는데 그것이 도리어 음질과 음색 등 음향효과를 잘 살려주는 결과를 만들게 되었다고 한다. 와! 이것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ALLSTAR REALTY
OUR NAME SAYS IT ALL™

김영신 부동산

Associate Broker
7001 Prospect NE, Ste. 200
Albuquerque, NM 87110
yongfre@yahoo.com

505.321.7695 (cell)
505.888.1700 (office)
505.888.9650 (office fax)